다보고안저잇다 영자는마침사감실에서 돌아온다 사라는일긔를열는접어책상설합에 다시너어버린다

四……一

일긔는차々로더워저서 이삼일전부터는 겹옷도외이려 더움을 늣기게되엿다 사라는 오날아참 홋옷을새로갈어입고 책상을대하고안저잇다 힌져삼파발 쌀을덥는기긴치마는 평일갓치활발한모양은하나도업고 형용할수업시 온화하긔운만가득하여뵈인다 숫만은검은머리를 비스듬아갈은뒤에 보기좃케처 닉々々짜어 그꼿헤는피빗갓치 불근당기를귀도접지안코 느지긋이느려매엿는대 탐스러운귀밋머리는 둥그스레한귀를반쯤가리워 맛치밝근초생달이검은구름우에 떠(浮)잇는듯하다 분갓흔것은말할것도업스나 그리유행하는연지라도 아직썻얼골에대여본일이업든 사라도 하번 봄바람이지내간뒤에는 흐드러지게피인꼿갓치 지금은은은하향긔싸지도들이게되엿다 그보들보들한 젓빗갓흔볼에는 붉으시레한빗이한층더진하여지고 좀어글어글한물결갓흔눈에는 말치못할풍정싸지도가득하여젓다 과연이세상모든물건은 봄을지낸뒤에야 비로소외긘갓미(美)를낫하내이는것인가보다 남의비평이라고는 평생입에도닫지안는 영자싸지도 『요새 사라의눈은엇전지 내정이가득하여뵈이는구려!』하며 칭찬한일싸지잇다

방한편에는 버서노은날근옷이 멧벌겹어잇고 벽에는조금안일력하나와 사라가그린 두어폭수채화외에는 하갓잡지에서돌여내인 아박사의초상사진하나가 은으로마든조금안사진틀에세워잇슬뿐이다 외긘방안은빈틈업시 무슨이상한향긔가 가득이차잇는듯하다

영자는 뜻어본편지한장을들고들어오드니 아모말도업시그대로 책상우에업려바리고만다 사라는웬일인가하여 의심스럽게 영자의엇드린뒤모양을살펴본다 본내부터라도 그리활발하지못하든성품이 근일와서는 한층더침울한여져서 오날은아직썻머리에빗도넛치안이하여 흣드러진머리털은 창백한목으로붓터 파리한억개싸지덥허버렷다 영자는업드린채머리도들지안이하고실품이가득한목소래로

「개성서편지가와서요」

「네!개성서요 왜무엇이라고하엿기에 그럿케긔색이좃치못해하시우?」

영자는긔운이하나도업서뵈이는얼골을 비로소치여들며

「뭐! 시원하말햇싸서요 이제는졸업도하여스니 고만시집을가야하지안캣느냐하고 또그외에도무엇을의논할말이잇스니 색와달나고하여서요……누가그런참견이나하여달나는지 그호처라는것은일후에라도혹시말하여들이겟지만……하도어이가업서 그래도형이나살어이섯드면 이런말인들내귀

에들어올이가이서요」

영자는 손에든편지를물그럼이들여다보며 다시입을연다

「그래도 갈제마다무엇을만이사가지고나가면……지금후취로들어온사람은 참말성질이싸다러운사람이얘요 일상나를보기만하면「우리집안은 영자씨 댁에서그럿케도은혜를만이밧엇다니싸 그대신영자씨에게나갑허드려야지요 은혜를몰으는것이야 사람이라고할수가잇서요 은혜는은혜대로갑허야지요」

「하며 입에침도업는말만살々하지요 그보다도차라리「오래간만에오면서 그저빈손으로오는염치가뭐야」「하고즉접바로대고말하면 듯기라도좀낫게서요 그런줄은쌔닌이알지만 수중에돈이라고는한푼도업는것을엇지함니가그래도형이나살어이섯드면이런소리가……」

말하는동안에라도목소리가점々썰여나오드니 나종에는그나마맛치지도못하고 구슬갓흔 눈물이핼숙하쌈을지나 흑흑〳〵하게되색된치마자락에뚝뚝썰어진다 그떠러진눈물은 마치영자의가삼에밧은상처갓치 점々완연하여지며그자리가점점커지기를마지안이한다 넘어도몰인정한후취에행실이 얄밉게생각이되니가 외로운영자의신세가더하층가긍하여뵈인다 그래서아모말도업시듯고만잇든사라의눈에도 이슬이가득하게괴여잇다 이갓치고독한영자를위하여동정에눈물을한방울이라도흘이여주는사람은 외닌세상을톡々터러야 사라한사

람박게는다시업다 잠시보아도천하기쉬운 활발하고도아름다운사라에게는영자외에도얼마든지천한동모가잇스나 침울하고도애교가적은영자에게는 갓치잇는사라라박게는다시아모도천한사람이업다 그래서영자는깁버도사라요 슬퍼도역시사라다 사라외에는말한마듸라도 갓치할만한사람은하나도업다 사라도역시모든동모들이 너머도경박하고머리가텡비인대신에 영자는침중하고시적(詩的)인것을무한이깁버한다 영자하고는외닌종일을 가치말해도실은생각은나지안엇다 혹시엇던때에여러학생들이 영자의침울한성질을비우스면 그럴때마다자긔의힘밋치는대싸지는 영자를변호하여준다 그래서영자는 극진이사랑하여주는동모의싸뜻한마음에 깁분눈물을흘임도한번이안이요 두번이안이여섯다

「그래도가봐야지요 우정편지싸지못천것을가지안으면 실타고하지안케서요 오날은일긔도매우조흔대」

「그럴싸요 그래도나는가고십흔생각은조금도업서요 그싸지일긔갓흔것이야 암오래도좃치만……」

영자는말끗흘우물々々하여버리고 천정만치여다본다

멧분되지는안어도 이때싸지이년간이나 학비를대여준것은곰압다고하지안을수는업다ㅣ아모리이전에는 자긔집재산을전부물여가젓다할지라도ㅣ실상영자

에게는 적지안은인이라고할수박게업다 그사람의청은못들어준다할지라도 가기싸지안켓다고하기는좀어렵다 그럿타고가랴하니 가지고갈선물은둘재로하드래도 위선타고가야할차비좃차도한푼업다 학비라고멧푼식보내주든것도 간달치박게는오지안어스니 영자의수중에는 사실돈이라고는하푼인들이슬싸닭이업다 그럴줄을뻔니이알면서도 여비하푼보내지안은영철의심사는 영자의야속한마음만 한층더깁게맨든다 이갓흔경우니싸사실영자가가랴고하드래도 갈수가업다 그래영자는생각다못하여

「가만두서요 가면무엇하오」

사라는영자의망서리는마음을자서이알엇다 그러나「이런말을하면 또엇더케생각이나하지안을가……」하며주저주저하다가 그만뜻을결정하고말하여버린다

「저ㅣ……여비갓흔것은내가엇더케든지해들일터이니……」

영자는아모말도하지못하고 사라의손만썩쥐인다ㅣ누구든지이갓흔경우에는시별달은방법은업슬것이다ㅣ그리고는줄이는듯이게검처러한눈에는 감사한눈물이핑돌아흘너내린다

四……二

영자는사라의말을쌀아 개성을갓다오기로결정하엿다 영자도가고는십헛지만

자긔가가고십허간다는이보다 사라의말대로간다는것이 사라에게대해서도그럿코 자긔마음에도안심된다고생각힛다 두처녀는사감에게말하고 교문을나섯다

「어대로갈싸요?」

「아모대로나가지 무어슬만이사겟다고이리저리단겨요」

「그럼종노로갈가요」

사라는하날을처여다보며말한다

오날은퍽더웁게서요」

「아참이이럴제는 낫이나되면대단하겟는걸이요」

영자는 이마에흐르는땀을씻는다 더위로인연하여영자의얼골에도 붉그스레한빗이가득하여젓다

아직아참이나내려쪼이는해볏은 양산밋헤서라도별노서늘한줄을깨닷지못하도록 확근확근하여지며 때々로지내여가는바람결에 춤을추듯시나풀거리든압이마털도 이제는이슬매치듯한땀에저々버려서 죽은듯시고요히업듸여잇다다른때라서그리번요하지안튼길에는 몹슬냄새를피우면서지내가는위생구루마한채박게는 사람의그림자라고는하나도업다 아모도업슴을다행이여기여 두처녀는양산을조금뒤로젹기여쓰고 모ㅣ도가우리세상이라는듯시걸어간다 사라

는문득영자의애인에생각이나서 양산너머로영자를바라보며물어본다

「인환씨는 요새무엇을하고게시우 편지나종종잇서요?」

「웬걸이요 남자들의마음은하나갓치 밋을수가업서요 인환씨는그중에도더욱심한사람이애요 간겨울부터는편지를해도회답도업드니 일전에는부전을붓처서 돌여보내든걸이요」

영자는심상하게대답하여버린다 영자의입에서는비록지내가는말갓치나오나실상인즉그사람이생각이잠시라도 영자의가삼에서사라질때가업다

「아마대단이밧부신싸닭이겟지요」

사라는위로하는말노 이갓치되집허물엇다

「그래그런것이안이애요 만일그럿타고하면나도그럿케마음이……달내그런것이안이라 우리집안식구가모다폐병으로죽어스니싸 나도색갈일것은기하정니보다도 참된것이라나요」

영자는언젠가인환이가「영자씨도색갈일터이니두고보서요」ㅣ하면압일을눈으로보는듯시말하든것이생각나서 지금생각해도야속하다는듯사 길게한숨을쉬인다 영자는인환의무정을말하다가는 으레히외人세상전반을밋을수업다고말하는것이 한습관을형성하고말엇다 그중에도사나이는하나갓치밋을수업는것이라고 정의(定義)를하여버리고만다

「참말사나히마음은밋을것이못대요 그럿치안으면……」

그러치안으면지금은 결혼예식까지도거행하고 밤낫마주안기만하면이야기하을담여우든만주로 호人이무人을떠나 슬것을생각하며 말의뒤도마무르지못하고입은다 사라는급시로번하여지는영자의얼골빗을보드니「공연이 그런말을쓰냇구나……」ㅣ하며후회하기를마지안이한다 그래서다시좀굿세인어조로 명영비슷하게위로하여준다

「영자그럿케심여만하지말고 좀쾌활한사람이되여바요 그럿케일상침울하고만이스면 업는병이라도생기겟소」

못처럼영자를위하여한말이 영자에게는도리여 장내에올무슨무서운운명의예언이나들은듯시 한층더얼골빗이좃치못하여진다

「그러면 나는참말병에걸이게요……누구라서벽에걸이기를 조아하는사람이어대잇겟소만은 나는참으로벽에걸일생각은조금도업서요 병이라고하면발서죽은형의임종시일이생각나서……」

영자는 죽엄의검은장막이갑째기완몸을 휘덥허누르는듯하여지면서 죽은형에얼골이불노써슨듯시뚝々하게생각난다

「참으로불상하여서요 그걸보면사내들은더한층밋을수업서요」

영자의말을듯건대이러하다 ㅣ병든사람의목숨은오날내일하는대도 소위남편

이라는사람은 밤낫술이나취하려단이다가 혹시엇지하여집에라고들어오면「사라나지도못할것을 얼는죽기나하지……저거왜안죽을가」하며 그리한번만만나보아달나고 애걸하다십히하여도 들은체도안이하엿다고한다 그러다가숨이마자마자넘어가며 얼골만이라도조흐니제발한번만뚝뵈여달나고하니싸마지못하여문만조금열고 들여다보앗다고한다

「그나마도 귄이뛰여나오느니전염이되느니하며 수건으로온얼골을다가리워버리고 겨우눈만들어내엿대서요 그것이얼골을뵈여주는본의가뭐얘요 자긔가보는것이시 글노보면우리형은제병에죽은것이안이라 무정한남편에게주겨진것갓해요 그래도이세상에서는그것을범죄라고생각지안어요 아ㅣ아ㅣ 잠시왓다가는세상이 왜그다지괴로울가요 나는 아……아버지가돌아가심보다도 어머님이돌아가심보다도 혀……형이죽은것이제일불상하여요」

영자는 한마듸두마듸말하여갈사록 점점음성이떨이기시작하더니 길가운데임도생각지못하고 늣기여가며운다 사라도울지안을수는업섯다 과연이세상은그갓치도 매정한곳이다 망종가는사람에게싸지도 그갓치하는매정한세상이다

마참어늬활동사진관광고인지 조곰아큼한오색조희가 이상하게장속한악대에활발한음악소래를딸아 묘하게춤을추며날어간다 두처녀는비로소 큰길가에

나옴을깨닷고 급히양산을숙여얼골을가리우며 눈물흔적을씨서바린다

두처녀는전차에몸을실엇다 사라는영자가자긔말씃을록々참으로 영자의얼골을치여다보앗드니 아모말도업시단지입을삐죽이내미러 창박을가라친다 사라는이상하여무엇이잇나하고밧글내다보니 거기는안박사가어대를가랴는지급피차를타려고뛰여온다

두처녀는얼골을조금붉히며 머리를숙이여인사하엿다 비록얼골은긔억하지못하나 S 학교학생이리라 교생각한악박사는 손쌀이모자를벗고답례한다 사라난자긔가안젓든자리를비이고 박사에게그자리를사양한다

「선생님 이리안즈시지요」

「안이요안즈시지요 나는곳내릴터인데요」

「저의도 곳내릴터이얘요」

마참엇던소학교학생하나가들어오더니 두사람의얼골을 한번힐긋치여다보고그자리에걸처안는다 박사는빙긋시우스며 두처녀의얼골을바라본다

사라의생각에는 차안에잇는모든사람들이 모다이곳만바라보는듯하여 얼골이광연이확근확근하여진다 과연모든사람들은 사라와안박사만바라보다가저의씨리무엇을소근소근한다 사라는 갑분지 슬푼지모든감적이죄ㅣ다마취되여버리고 거의미이라갓치우두먼이서잇섯다

여차가도서관압흘지내가랴니가 박사는예의아름다운눈으로잠자목예를하고나서는 가법게쒸여내린다

「안선생은 참말훌륭한양반이야」

사라는겨우떨이는가삼을진정하고 분홍빗손수건을씨내여이마에빗천땀을씻다 가영자의말에목을싹댁〳〵하며 역시가는목소래로대답한다

「영자도 그럿케생각하시우」

五……

「아이고퍽은더웁다」

사라는웃옷을버서걸며 영자를돌아보고말한다

「참말 삼복중이나질것업겟는대요」

영자역시옷을버스며 이갓치대답한다 수건으로땀을씻고나서는 사온물건을다시싼다 마참문이고요이열이며누가들어온다 두처녀는웃동을벗고선물할것을싸다가 의외에누가들어옴을보고 엇절지를몰나갈팡질팡하다가

「아이고나는누구라고……깜적놀냇네」

사라는입으로든적오리를 다시버스며웃는다

「호!호!뭐그럿케놀내요 낸데 아이고그게다뭐야 퍽은곱다」

지금들어온숙자도갓치우스며 새로사온양산을펴본다

「아이참이젓네 악가열한시나돼서사라언이에어머님이오섯대서요 그래한시간이나기대리시다가 사감에게무엇이라고 한참이나말삼하시고가섯々요」

「뭐요? 우리어머니가오시다니……그런대어대로가섯々요 우리이모님댁으로……?」

「네! 사라씨하고똑갓치생기섯기 나는발서언이어머님인줄알고 물어봣드니그럿타고하서요 그리고나를엇지귀애하시는지몰나요 나갓치생기엿든쌀이잇섯는대 다섯쌀에죽엇다고하시든지요 그래서나도모르게「어머니」-라고불넛더니 우스시며잇짜가언이와갓치놀너오라고하섯서요 나도그런어머님이나한분게서스면……」

「아마 죽은내동생말을하신게구려 참말숙자와똑갓치생겻대서요 그리기내가일상내동생이라고하지…… 그런대숙자는어머님이살아게시지안우?」

「게시긴게서두요……게모님이애요」

숙자의얼골에는 슬픈빗이현저이낫하난다 사라는숙자를껴안으며 참말친동생갓치등을어르만진다

「그러면 우리어머님딸이되구려」

「참말이애요? 나도어머님이라고불으고십허요 지금생각하니우리어머님도사라씨어머님갓치생겻든듯해요 그러면오날붓터나는어머니라고해요 그러

고당신도참말언이라고하고……」

「그럼인제는 거진말언이라고햇요?호!호!」

「하!하!이젼에는그양언이고 오날붓터는 참말언이란말이애요 아ㅣ참오선생님이언이돌아오거든사감실로오시라구요」

「왜요?」

「그는몰나두 곳오시라구하세요」

「그럼 내갓다오께」

사라는옷을도로주어입고 사감실로향하여내려간다

사감실은동편으로매친웃방인대 이곳에안즈면 S학교전체가 바둑돌버려노흔것갓치 한눈으로죄ㅣ다볼수가잇다

지금이학교사감으로잇는오선생은 엇던재상에딸노서 연전나라가병들게됨애아버지를쌀아 수십년이나외국에서떠돌아단이며 지금학생들은쏨에도생각지못할 모든곤경을다지내엿다 그러는동안에는엇던외국사람에주선으로 녀자대학까지맛치고나서 다시그학교부속으로잇는녀자중학교에서 교편을잡고지내여가다가 삼년전에학교교장이그나라로유람을갓다가 조선의사정을이약이하고이학교로와달나고간청함애 다시정갑흔고국으로돌라오게되엿더라 그파란만은반생 半生)이오날은 모든사람들이공경하는덕망에토대가되여 사회에서도

모든여자의모범이라고추앙하고 감독하는여러학생들에게싸지도 만은공경을밧게되엿다 나이는오십이헐신넘어서도 초년붓터홀노지내인싸닭인지 아직도얼골에는 주름하나잡히지안이하엿다

사라가문을고요히여니 반양식으로쑴여노은삼간방에는 틔끌하나날지안이하고 선생은창을향하여노은지나식책상압헤 고요히안저잇다 (불교을밋는이는의상좌선(坐禪)을한다드니 아마지금좌선을하는중인게다 엇더케할가? 들어가나마나……)ㅣ하고사라는주저ㅅ하다가 그대로다시문을고요히닷는다

선생은책을읽고안저잇다가 문열이는소래에고개를돌이니 마침사라가문을닷치랴고한다

「오ㅣ 사라냐 어서들어오나라」

사라는공손이머리를한번숙이고 조용이걸어들어간다

「점심은먹엇니?」

「네ㅣ」

책상우에노여잇는청동사자향노에는 가느ㅣㅅ한연기가졸이는듯시고요히피여올나간다 선생은영창을한자쯤열어 갓치여잇든방안에공긔를갈어너으며 말을시작한다

「사라야 악싸열한시가량이나되여 어머님이오섯다가섯다」

「네ㅣ 지금숙자에게도대강들엇씀니다」
「그래서 얼마동안기대리시다가 게동으로가신다고하시며가섯다」
「네ㅣ……」
사라는 어머님오신리유를알수업서 그것을생각하노라고「네ㅣ」ㅣ하는대답을
기ㅣ르게섣는다
「어머님께 집안사정은자서이들엇다」
선생은 미소를띄우고다시한번불은다
「사라야」
사라는 집안일를자서이들엇다고하는말이 또그일이나안인가하고 가삼이조
마ㅅ〳〵하여대답도하지못하고 선생에얼골만처어다본다
「자서히듯고나니 네의향도대강짐작하겟고 더욱두분에마음도자서이알수잇
드라」
선생은한층더인자하목소래로
사라야 이갓치밤낫할것업시 갓흔학교안에서자고먹고하며 직접혹은간접
으로 너의들을가르치고너의들을보호하고잇스니싸 내게는마치사랑스러운
딸들 마ㅣㄴ이기르는것갓구나 누구한사람을더사랑하고 누구한사람을더
미워하겟니만은 너는 내가항상특별이사랑하는싸닭에 일조에학교를맛치

고사회에나아가서래도 남에게비란을밧지안키를 나는일상바라고잇다」
「……」
사라는 한셋감사하외에는 무엇이라고대답할말이업서 여전이묵々하고안저
잇다 선생은더욱진중한어조로
「너의어머니 아버지는공부도그만큼하여스니 이제는고만집안사람이되여주
엇스면……하시드구나 너도지금은상당이교육도밧고 보통상식을가젓스
니실사회에나아가배운것을 한번활용하여보와스면엇더하겟니?」
사라야 활용이라고하면반다시남의선생이되던지 또는책갓흔것을저술하는
「사라는 선생이말하랴는뜻을몰나 그냥아모대답도업시안저잇다
것에만한한것이안이다 남에안해가되고 남에어머니가되여 한가정자ㅣ르
다슬너감도 역시활용에한가지가안이겟느냐」
요새여학생들은 공연이쓸데업는허영에만취하여가지고 밥이나짓고쌜내나
하는것은 한갓남의집 하인된사람들이나하는것이요 또남의집하인은안이
래도 그런일을하는사람들은 모다천한사람이라고생각하는버릇이잇다 너
는물론그럴이가 업스리라고생각한다만은 그것은결코 올은일이라고할수
는업다
기실쌜내나하고밥이나짓는사람들가운데는 학식이상당하고긔품이고상한사

람은 별노차저볼수업는싸닭에 얼는보면그사람들하는일싸지도 천한듯하여뵈이는것이다 아모리맑은물이라도 검은그릇에담으면검애뵈이지안이하느냐 그러나그물이검어그런것이안이라 우리의관찰이정밀치못한싸닭이다 그러기에그물을 다시맑은 유리그릇에담으면 한층더맑아뵈이지안이하느냐 즉말하자면물은담는그릇빗을쌀아 엇더케든지달나뵈이는것이다 그와맛찬가지로 학식도유여하고인격도훌융한사람이 그러한일을한다고하면 엇더하겟니?

또사람을의론함에는 지식보다도 또는외모보다도 졔일중요한것은인격이다 무론직업이라는것은귀천이업는것이지만 지금그러한차별이잇다고가정하자 그러면귀한일을하는사람은귀해지고 천한일을하난사람은천해지느냐하면결코그런것은안이다 마치각색그릇에물을담으면 우리에눈에는그그릇빗을쌀아 혹은붉게 혹은검게뵈이나 실상그물빗은어늬때든지맑은것이나 무엇이조금이나달으겟니?

그러하기때문에 엇더한일을하든지 그사람에인격에는조금도영향을밋치지안이한다 사람에생명과갓치가장중요한 인격만변함이업스면 그사람은여전이그사람대로잇슬것이다 만일그만것으로그사람의인격이 오르고내리고한다하면 인격이라는것이그사람일신을대표하도록 그러케귀할것은 조금도

업슬것이다

사라야 너는나를보고선생선생하며 모든것을배우고모든 일에지휘를밧지안이하는냐 만일내가지금부억에가서 물을깃고밥을짓코 또쌀내갓흔것을한다고하자 그러면너는다시나를선생이라고도불으지안코 아모것도내게는배우지도안겟구나 그래도너는여전이 나를선생이라고불을터이지? 나도이전에 외국서표탕생활을할때에는 내손으로쌀고내손으로지어입엇다하필밥짓고 쌀내하는것에만한한것이안이라 가정에모든일은 죄-다녀자의천직이다 그천직을다하는대들어서야 누가그사람을비웃고 누가그사람을천하다고하겟니 만일엇더한사람이 그들을비웃고그들을천하다고한다하면 그보다도먼저그사람자신이 비웃기고천대를밧을사람이다

더욱녀자뿐안이다 남자에게도그러하다

선생은씨우러저가는 선향을바로잡아놋코

정결한방안서선풍긔나압헤놋코 낫잠이나자는부호들을봐서는 불갓치쓰거운볏아래서 허리도펴지못하고일하는농부들은 하나갓치사람갓해뵈이지도안이하나 실상은그땀을흘이고일하는것이 편안이누어낫잠을자는이보다 얼마나가치잇는일이냐 그곳에비로소인생의참뜻이라는것이 낫하나뵈이는것이다 그뿐안이라우리사회에서는 부호열사람보다도 든든한일군한사람을

더한층환영한다

사라야 이곳에엇더한사람이잇서 그의직업으로그사람의인격을 저울질한다고하면 너는물론어리석은사람이라고 비우슬터이지?

요란한공장안에서기계를돌이나 편안한의자에서원고를쓰나 그직업에종류는다를지언정 그사람자신에천직을다하랴고하는대들어서야 무엇이달으겟니

요재절문사람들은 그사라의인격이 엇더한지는조금도생각하지안코 덥허놋코그사람에직업 재산 용모만가지고 그사람의갑을정하고만다 너는넘어도천박한일이라고 생각지안켓니?」

「그야물론 그사람들에대한오해지요」

「그럴터이지 그러면지금이곳에 학식도웬만하고인격도상당한사람이잇다하면 너는그사람을엇더한사람이라고 생각할터이냐?」

「다시더할수업는 훌융한사람이라고 할수박게업지요」

선생은 빙긋이우스며 다시입을연다

「사라야 네게는임이약혼한사람이잇지?」

선생은 사라에얼골를바라보며 긔색을살핀다 사라는비로서 선생이아직싸지말하여온뜻을 깨달앗다

「선생님 그것은아조확정한것은안이애요 단지……」

사라는 애호하는듯한어조와 동정을구하는듯한눈으로 선생을치어다본다

「응 모든것은다들엇다 너는그사람이 학식이업다고그런다지?」

사라는 아모대답도못하고 단지두귀만점점붉어진다

영자는말보다도쓰기를잘하나 사라는쓰기보다도차라리말이다 그래서범백에말모지라본일이업는사라도 자긔손으로자작읽거노은이상에는 다시쌈짝할수도업다 더욱인자한어조와 가삼을쎠뚤너들여다보는듯한눈압헤는 말한듸입에서나오지안이하고 다만고개만점점숙으러저들어간다 선생은귀여운듯이 우스며다시말를게속한다

「사라야 네생각갓해서는 너는그사람보다얼마나더 훌융한학식을가지고잇다고생각하니? 그사람도올봄에검정시험을 통과한이상에는 네게별노질것이업스이라고나는생각한다 그러나네게는 그사람갓치수만은직공을지휘하여 한공장을경영하여나 갈힘은업지? 그뿐안이라그사람의일은 너갓치단지네일신에만 조금광휘를더하니보다 얼마나범위가널브냐 그우에충분한상식이잇서 또상업상긔술까지도능하다하니 그사람은과연두가지를겸해가진 훌융한인격자가안이냐」

「……」

「사라야 사람의이상과실현이라는것은 반다시일치하는것은안이다 너는아

직경험이업스니싸 혹시밋지안을난지모르나 젊어슬때에이상이라는것은 모다쑴과갓하서 대개는현실과충돌을일으킨다 그리기때문에 그리여보든이상에범위가 크면클사록충돌이크고 따라서실망이큰법이다 만일내가너를 특별이사랑하지안는다하면 이갓치어려운주문을하지안이하겟다 알어듯겟니?」

「……」

선생은 아모대답도못하고 고개만숙이고안저잇는모양을 더욱사랑스러워서 손으로머리를 쓰다듬어주며다시말를시작한다

「아모취미도업고듯기만실은말을 하도오래하엿스나 나도역시너갓흔시대를 한번은지내여온일이잇다 그래서네가가지고잇는 모든번민도대강은짐작하고잇다

사라야 한반생을너보다먼저지내천내눈으로보면 너는한갓아직어린싸닭이라고박게는 생각되지안이한다 사라야 자긜깁히생각하여보아라」

열이여잇는창으로붓터 오후에쓰거운긔운이흘너들어온다 말하는사람이나 말을듯는사람이나 다갓치아모소리도업시안저잇고 책상우에노여잇는시계에초침만 뜻업는세월을째삭째삭하며구절찍어간다 마침문이고요이열이며하얀들어와서 오선생에게면회하려는사람이잇다고말을전한다 대답할말이업서 엇

절지를모르고망서리든사라는 천재일우(千載一遇)의긔회라고 얼는몸을일으켜더니 문득무엇을생각하엿는지 다시선생의얼골을처어다보며

「선생님 저어ㅣ이것은달은말삼이나 영자는요재매우 곤란하게지내고잇서요 엇더케가정교사갓흔것이라도한곳……」

「응 영자말이냐 일전영자한테도대강들엇다만은 아직도가합한곳은한군대도업고 재학기붓터는임시교원으로나쓰려고 학감과의론하여보왓다 아마그것은염여업슬듯하다 그런대오날개성을가겟다고하드니 어늬때떠나겟다고하드냐?」

「준비되는대로곳떠나겟다고하여요」

사제간에말은일노웃을막엇다 사라는영자의깁붐싸지도 대신하여치하하고 사감실에서나아왓다 마침 숙자가제방에서나오다가 사라를보고뛰여오며

「언이우리테니스하려가요?」

「어머님도오시고 영자도개성을가게되니싸 언제공칠틈이잇서야지 오날은혼자서치구려」

「아이고동생보고「구려」ㅣ가다뭐야 그런대잇다어머니한테갓치가요」

「그유 염여말어요 갈때나차즐째……」

숙자는 고개를쌋댁쌋댁하며 낙겟을두루며뛰여나아간다 사라는올나가는층

계에몸을지대고 뛰여가는숙자의뒤모양을바라보며 웃다가자긔역시뛰여서자
긔방으로올나간다
영자는짐을싸다가 들어오는사라를돌아보며
「선생님아 무엇이라고하서요」
「쑤중만 잔득들엇서요」
「왜요 집에가지안는다고요?」
「말하자면그런세음이지요 내역시잘하는일아라고는 생각하지안어요 아이
고선생님에말삼에고만등에땀이 흠삭이나서요 하하 참나도어머님한테나
좀가봐야지」
「그런대이모님댁이 어대얘요?」
「계동막바지람이다 아이고삼십분박게는안남엇네 어서인력거불너달나고하
지요 잘못하면느질터인데」
「오라고햇서요 참 어서떠나야계동좀둘너가지」
「그러치안아도느즐터인데 언제계동을둘어가요 내가서그런말삼은하께 아
것은차에서나……」
사라는영자손에무엇을쥐어준다 영자는무엇인가하여손을펴보니 오원짜리지
폐한장이고깃고깃구겨잇다

「아ㅡ 아것또왜주서요 악가쓰고남은것만해도 차비싸지도넉넉하데」
영자는돈을다시사라의손에 쥐여주려고하나 사라는억지로떠막기다십히하며
「글세밧어둬요 그리지말고 정으로주는것은사양치못하는법이얘요」
영자는할수업시바다너으며
「그럼내가쓰지요 참사라의은헤를……」
마참운동장에서 숙자가소리를친다
「영자언이 인력거가왓서요」
「네ㅡ 지금나아간다고하여주」
영자는 급히버들고리를들고일어난다
「나는그럼바로가겟서요 몹뵙고갓다고말삼이나하여주시우」
사라도쌀아일어나며
「글낭염여말어요 어서나아갑시다」
두처여는버들꼬리를마주들고 층대를거러내려간다
영자는 인력거에올나가며
「그럼 자ㄹ게시우」
「자ㅡ 잘단게오셰요 나도여차하면집에갓다오게될지도몰나요 가게되면내
편지하지요」

숙자도 뛰여와서 인력거우에서 흔들이고 가는영자의뒤모양을 바라보며
「언이 잘당겨오오」
「네ㅣ 그새잘놀으시우」
숙자는 다시사라에게매여달이며 두손으로는사라의목을껴안고흔든다
「언이 서어어머니한테가요」
사라는우스며 치여다보는숙자의이마에입을맛친다
「자ㅣ 그럴의복이나갈어입고」
두처녀는깁분듯이뛰며 긔숙사안으로들어간다

五……二

낫이라도그리번잡하지안은S학교부근에는 날이점은뒤면전등도별노업시 무덤가운대갓치고요하고 단지긔숙사압뜰 켜잇는십촉전등만 밤마다졸이는듯시깜박어리고서잇다 사라는지금막숙자의조력을힘입어 버들고리를얼거매고나서 무엇을생각하는지 적々한비인방안에서혼자고개를숙이고 조으는듯시안저잇다 밤은발서깁듯하여 야경하는사람이딱々이소래만 밤어두은적막을깨트리고 고요히잠든 긔를흔들며 울이여간다 산이짜릉짜릉울이든그소래가사라지고만이싸 밤은한층더고요하여지는듯하다
누가문은록々뚜드리는소래가나드니 안에회답을기대리는듯하여 잠간동안고

요하여진다 그러나사라는무엇을생각하노라고 그소래를듯지못한듯하여 아모소래도하지안코 여전이고개만숙이고안저잇다 문박게서는다시또록々뚜드린다 사라는이제야비로소알어듯고
「드러오렴으나 뚜들기기는뭐」
그말소래를빨아문은고요히열인다 사라는들어오는사람을바라보더니
「웬ㅣ 망할년 나는숙자가와서그런다고…… 일상그대로들어오다가뚜들기기는 뭘뚜드리니 그런대너가진게뭐냐?」
「하!하! 나는좀뚜드리지못하니 이것은숙자의이불이야 영자도업시혼자서갑갑하겟기 놀너온다」
「어서들어와요 왜그럿케서고만잇니 그런대숙자는왜오지안는」
인제무엇을쓰고잇드라 다쓰고야오겟지 참너내일집에간다지?」
「그래 뭐별노가고십지는안어두 어머님도우정을나오시고 오선생님도내려가보라고말삼하시기 마지못하여 잠간단여오기로햇다」
「너는 퍽조켓다」
「조을게뭐야 그리조아뵈이거든 너도내일가자싸나」
안이야집에가는것이조켓다는것이안이라 그……하!하! 나는집에가야부모님박게는 누구하나반기여주는사람도업드라」

경희는말을마치고나서 쾌활하게웃는다 경희는사라와갓치 금년이학교를맛
친사람들중에하나이다 성질이매우쾌활하여 누구나경희를실타고하는사람은
하나도업다 그리고경희가제일조아하는것은 피아노와테니스다
사라도딸아우스며
「넌왜업니 뭐피아노를배워서 잠을깨우느니엇저니하며떠드는위인이 도리
여나를보고그래」
「안이야 그것은일후에생기면 그럿케하겟다는것이지 하!하!」
사라는한숨을쉬이며 맥이하나도업는목소래로
「그런소리는어데서주어들엇니…… 내게는잇기는잇서도 그것은아조못쓸
거야」
못써? 왜어대가쌔여젓니 뭐를못쓴단말이냐 그런게안이라 악싸사감실
에를갓드니 선생님이너보고 그런말삼을하시드구나 다른말갓흐면 들을
이도업겟지만 네게대한말일분안이라 하도자미스럽기에 한참서々들엇다
너는오선생님말삼대로눈이너머놉하서그래 나갓흐면외긴몸을턱맛기고「나
를사랑하여주십시요」하겟드라
요재무어니무어니하며 떠들고돌아단이는사람들은 하나갓치입만싸노아서
엇저니엇저니하며떠들줄이나알지 실상은보통학교학생들만도못하드라 보

통학교학생들은 거진말이나하지안치 이자들은하나갓치 모다오포(午砲)
셈이야 소래만요란이나지 실탄이야어듸잇나 그것도혹시엇던때는필요할
지몰으나……하하」
「그는그래 그것을나도몰으는것은안이다 그래도공연이 그런것을엇저
니」
「그럼 저런사람이래요 네마음에맛겟니?」
사라는무심코 경희의가라치는곳을바라보니 거기는안박스가웃스며 자긔를내
려다보고잇다 경희는아모의미업시 한갓우슴에말노한것이나 사라의가삼은
의미잇게썰이여나오며 아모대답도업시 다만방긋이웃는다 경희는이갓흔것
은본둣만둣하며 다시말을잇대여
「안박사는 누구든지숭배하는모양이야 간곳마다 걸여잇슬제는…… 아마
안박사도사라를보면실타고하지안이할썰 하하하」
경희는말을마치고 사라의얼골을유심이들여다보며 웃는다 사라도딸아웃스
며 경희에입술을혹틔긴다
「내종에는 별소리가나오누나 야번엔 또무슨소리가나오겟니 요입술에서」
「안이야참말이다 안박사도너는사랑하실썰뭐!…… 평일자랑겸 싸어느렷
든 머리를들어올이니싸 한층더어엽버뵈인다 언젠가잡지에서본 구레옵

바ㅣ도라갓구나 엇저면그리뚝갓흐냐?」
사라는 경희에억개를탁치며 눈을흘기며웃는다
「엑씨 못된게집애 무엇이라못하여 하고만은가운대 하필구레옵바ㅣ도라야 넌구레옵바ㅣ도라박게는모르니」
「아이 껸압흐구나 그럿케도단々이때리니」
「잔소리말고가서 이불이나가지고오너라 숙자도근너오면혼자갂급할터이지 또나도내일떠날터인대」
「그래 내가지고오마」
경희는아참에배운 피아노음보를입속으로외이며 자미스럽게코노래를부르며 나아간다 사라는다시혼자됨에 고요히안져 악싸하든생각을 다시게속한다 무엇을조금생각하노라고 목을갸웃하고잇다가는 다시가비얍게한숨을후ㅣ하고쉰다 사라가지금생각하며 괴로워하는것은 내일집에갈일과 집에가면자연이만나지안을수업는상현의일이다
사라는이갓치상현을쓰리고잇스나 작년봄싸지는 상현을마음가운대로깁히사랑하여왓다 그뿐안이라 자긔의일신을의탁할 오직한사람이라고싸지 은々이밋어와스나 한번박사의강연을들은후로부터는 자긔도모르게차차로상현에게대한마음이식어지기시작햇다 그래서요새는 혼자서무한이마음만태우고지

내인다 사라는혼자안기만하면 일상박사와상현을비교하여본다ㅣ져울에달아도보며 자로재여보기도한다ㅣ그러하다가는 박사에게는 세상에잇는미는모도다 주어다붓치며 원갓학식은모도다이편져울에올여놋코 상현에게서는잇는미도흠칠을하여버리고 잇는학식도다덜어버려서 천평의억개를마이너쓰편으로홱돌아가게만들고야만다 사라는그럿케하지안으면 머리가점점압허들어오며 왼몸이다짓쌕두두하여지는듯하엿다 그래서될수잇는대로는 상현을짝가버려야 져윽이속이시원하여지는듯하엿다 짤아서사라의가삼속에잇는안박사는 날노살이찌고아름다워가는반비로 상현은날마다여위여가고흉하여진다 지금도사라는그파리하고도흉한상현의얼골을 잇치려고무한이애를쓰고잇다 그러나그얼골은조금도업서지지안이하고 그러면그럴사록점점분명이떠올나온다 사라는행여나잇처질까하고 박사의초상사진을물그럼이처여다보니 그윽갓흔얼골빗이차차로검어지며 기름이찌르르흘으더니 마침내뜨거운벗아래서 종여나무그늘에몸을가리고 김승갓흔욕심이가득한눈으로 나이어린처녀를노리고잇는 번족(蕃族) 갓흔상현의얼골로변하여지고만다ㅣ요새사라의마음가운대빗치는 상현의얼골은 이와갓하섯다ㅣ그래서사라는눈쌀을찝흐리며 화증을 더럭내고일어서며

「에ㅣ이 귀치안어」

사라는혼자서 소리를버ㅣ럭지르며 방안을두어번비ㅣ우 비ㅣ우 돌아단이더니
창을열고박글내여다보고서서잇다
밤은몹시잔잔하여 모다잠이들어버렷는지 바람하나쌋댁하지안이하는대 아
래층응접실에걸여잇는큰괘종은「뗑ㅣ」ㅣ하고재로한시를보한다
「애들이 잇때 시것무엇을하고잇슬가?」
혼자중얼거리며 천정에어스렴하게색문의를그린 정든사갓의 그림자만눈머
글건이치여다본다
六……ㅣ
사라도어머님과갓치 복잡한사람의틈을지나 이등실한모통이에자리를정하고
안젓다 차안은예에업시조용하여 어린아해데린일본여자한사람박게는 단지
사라의모여두사람뿐이다
정각이됨애긔차는 역장에신적소래를딸아 우렁차게한소래를지르고나서 경
성역을등지고 차차속녁을더하여 달어나기시작한다 ※ 색칠줄을모르고짓거리
든 수만은 전송인들도 지금은풀냇르폼에서서 수건과모자를흔들며 잘가
라는마지막인사를한다 차가점점구내를버서져나아갈사록 목소래는들이지안
이하고 마치활동사진속에잇는사람갓치 입만벙긋벙긋하며손짓을하고잇다 차
가전차달이아래를지내고나니싸 그리떠들든삼등실에서도 지금은모다자리를

정하엿는지고요하여지고 대철에부듸치는긔차박퀴소래만 갈사록점점자자진다
사라는다시오지못할길이나 떠난듯시서어한마음을진정키어려워 번개갓치뒤
로달음질하여가는 의주통길가에잇는상점들만 정신업시바라보고잇다가 그
도차차로다하여가니싸 남모르게무거운한숨을 후ㅣ하고쉬인뒤에 교만눈을
스르르감고 몸을뒤으로기대인다 긔차는지금아현수도를지내가노라고 박퀴
의조음이 하층더요란하여진다 근심에싸여잇는사라의귀에는 그소래가마치
죽엄의사자들의 승니를노래하며뛰여노는발자최소래갓치 무서웁게들인다 사
라는갑재기무서운생각이왈악나서 눈을감안이떠보니 차안에는전등도켜지안
코 참말죽엄의나라로변한듯시 완통식쌤은가운대잠기여잇다 사라는내몸이
참말염나왕의압흐로 쓸이여가나하여 자긔도몰으게외ㅣ몸을한번 가비업게
썰고나서 마치도망을하려는것갓치 몸을와ㄹ칵일으켯다 그러나 관성(慣性)
에쌀이여 사라의몸은그대로그자리에쥐져안처젓다 이것도사라에게는죽엄의
사자에소위갓치 생각되여서몸을한번 다시부르르썰엇다 그러는통안에차창
은 차차로밝어오기시작하드니 어두움에쌔여잇든창으로는 연변에푸른나무
그림자가 선연하게재여들어온다 사라는한업시머ㄹ사막에서 길을일코헤매
이다가 낙타의발자곡이나차져낸듯이 져윽이안심되는빗과 한업시반가운마
음으로 눈을다시고요히감고만다(이번에또상현이말을하시면 무엇이라고대답

을하노… 작년에는그러치안엇는대 내가나를생각해보아도 그새이갓치변한 것은좀이상한일이다 무삼싸닭으로나는그사람을실여하게되여슬싸? 나는그 사람을사랑치안이하면안될 무슨의무는업지……)

사라는이것져것생각하노라고 차가머무르는것도아지못하고안져잇다 긔차는 신촌역에서몸을잠간쉬이고 다시다러나기시작한다 어제밤도상현이일때문에 잠한숨자지못하고밝힌사라는 희미한생각의바다(思考의海)로떠돌어단이다가 고만편안편안한쑴길로흘너들어가버리고만다……

험한산가운대서몹슬맹수를만나 버서나래도도망할수가업서무한이애를쓰다가 겨우남의힘을입어조금달어나다가 놉흔낭에서떠러지며 앗질하여눈을쓰니 쑴 에얼마나애를쓰며헤매엿는지 엽헤안젓든어머님이가흔드러깨워준다

「쑥은 무슨쑴을그리 요란스럽게쑤니 엽헤사람이다민망하게」

사라는아모대답도업시 그대로웃고만잇다 해는발서낫이나되엿는대 긔차는 사리원역에머물너잇다 ❀

사라가해주도착되기는 오후여섯시경이다 빗나게도내려쪼이든 이른여름해 발도바다건너편에 긔여가는누에갓치 올독을독한연산뒤으로반이나가리워지고 남산밋헤버리여잇는초가집굴둑에서는 져녁연긔가고요히흘너나온다

차가정유소압헤머무르니 집에서마즈려나왓든늘근하인이 반색을하며차엽흐

로갓가이온다

「아ㅣ그동안엇찌 그러케오시지안이하섯소?」

「아이고영감이나왓나 그새더늘근것갓구면 요재도술이나잘먹고…… 순네 어멈도잘잇나?」

「잘먹고말고요 이영감에양식은술인데요 그런대마님은어대다섯소?」

「이뒤에오는차에게시네」

이러케말하노라니싸 또한채의자동차가 여러사람의틈을헤치고들어온다 늙은하인은다시그곳을향하야 쌉을쌉을하며걸어간다 짐은늙은하인에게맛기고 모녀두사람은역개를가지런이하야 남문을바라고걸어간다 마참엇던젊은신사 한사람이 엽흘지내여가다가 째안인학생이내려온다는듯시 한번힐금치여다 보고지나간다

「어머니우리집이 새로이사햇다지요?」

「그래 남산밋헤새로짓코그리로옴기엿단다 무엇반양식인가무엇인가하며 집 웅도다별스럽게맨들고 문들도다이상하게해달엇는대 터는넓어두집이라야 어듸얼마되야지」

「왜그러케짓는것이조치안어요 좌우에원림이만어야 공긔가맑아서위생에도 조치요」

「위생이니공긔니다모르고살어도 이전사람들은더오래만살드라」
「아이고 어머님은……」
길싸아가시야그늘에서 모래작난을하고안져잇든어린아해들은 사람이오니싸 한엽흐로치여안는다 못처럼지여노앗든집이 지내여가는바람에 문어지니싸 여러아해들은원망스럽게 눈을한번흘기여보드니 다시모래를글거모아손등에 다올녀놋코「두겁이는집짓코 황새는물깃고…」하며 무덤모양으로둥그스레한모래뭉치를 어린아해재우는어머니갓치 토닥토닥뚜드리고안져잇다
「어머니 져개가우리집「신둥이」가안이애요?」
「그래 그개가엇더케혼자나와슬가……」
갓나은송아지만이나한개한마리가 주인을반기여이리뛰고져리뛰며 나무그늘로쫏차달어나온다 그뒤에는어린순네가 고사리갓흔손에음싱아를한즘움키여쥐고 역시반갑게개뒤를짜라온다 사라도갓치뛰여가며
「순네야 잘이셧니?」
「네ㅡ 아씨…… 아이고마님도오신다」
「오ㅡ 너그새어머니졸으지안코잘놀엇니?」
「네ㅡ」
사라는쇼리를치며돌아닥이는 신둥이머리를쓰다듬어준다 지난젊은주인을반

기여 쇼리를설네설네 흔들며 사라의치마쯧을물고 압뒤로두어박퀴비잉〳〵돌아단이더니 길을인도하는듯이압흘서서 설녕설녕걸어간다

六……二

내려오기만하면 좀단단이쑤즈즈리라고 벼르고잇든아버지도 모다이져버린것갓치깁버하하며
「그새는 왜도모지내려오지안엇니?」
「뭐이 모도밧버서요 발서붓터오려고는하면서도 인해내려오지못해써요」
사라는아버지의얼골을처어다보며 어리광을부리듯시우스며대답한다
「밧버? 뭣시그리밧부드란말이냐 집에올틈도업시……」
「그래도모도밧부기만해서요 이번에도어머님이올나오시지안엇드면 못왓슬번햇는데요」
사라는몸을조곰압흐로굽히며 뒤에쌀인치마자락을쌤으며 자리를곤처안는다
어머니는무엇을찻고잇다가사라를도라보며
「밧부긴무엇이밧버 오기실으니싸드럽듸고잇섯지 너는부모도보고십지안흐냐」
「아이고어머님은 원……」
어머니는 그대답은하지안코뒤마루로나아가며 남편을바라보고

「이리나오시지요 여긔가매우서늘하와다 또사라를바라보고우스며 너도이리나오너라 이번집은연못도크게파고 연도만이심엇단다 너연못을 조아하지안니 사라야」

「연이요 어듸심엇서요? 꼿은연이제일조아요」

부인은 사라가어렷슬때에 부용당연못에연꼿이 만이판것을보고돌아와서 좁은뜰가운데다연못이라고체박퀴만하게파놋코 썩거가지고온연입하나를또자놋코 쌈을흘여가며물을길어다붓고나서 한업시조아하며 그것을어머니게뵈이려고뛰여들어오다가 문턱에걸이여너머지고울든일을 생각하며웃는다 지금사라는말은쌍에연을심으고 깁버슬사라는안이다 그러나어머니의자식사랑하시는마음은 이전이나지금이나조금도달을것이업다 그래서학교에서는훌융한상급생이라도 집에만돌아오면젓이갓써러진어린애갓치 되여버리고만다

과연후원에는조금안연못이잇고 그엽헤는묘하게쑤부러진소나무한주가 물우에써잇는푸른연입과서로빗치여 하층더푸루러뵈인다

「아이고 참훌융한연못이애요」

「저것은너의들을위하여 지은것이란다」

사라는아버지에말을쌀아 손가는곳을바라보니 두어간이나되는조선식별당이푸른소나무새 로 은々이내여다뵈인다 그러치안으면금세라도뛰여가볼사라

가 너의들이라는「들」자에 아직싸지깁버하든마음은 하나도업시사라저버리고 다만머리를숙이고묵々히안저잇다 아버지도역시아모말도업시안저잇다 이편에서는부인이 딸의가지고온짐을쓰르다가 쌈은치마하나를손에들고 사라를부른다

「사라야 이쌤은치마허리에너어두엇든 부작주머니는엇더케햇니?」

대답할말이업서주저주저하고안저잇든사라는 조와라고열는몸을일어나오며

「뭐요」

「이치마허리에너어두엇든 부작말이다」

「네! 그것이요 참말그때입으려고보니까 무엇이불숙하기에쏫어보앗더니 부작싼것이들어잇서요 그래서쓰내버리고입엇서요」

어머니는깜작놀내며

「그것은왜 객지에난몸이언제무슨일이잇슬줄알고……그래도그것을몸에진이고잇스면 모든재앙이다소멸된다드라」

「원 어머님은별말심을다하시네 그까진것이재앙을엇더케소멸을식여요」

「그래도그러치안단다 그것이잇스면 밥을달나니옷을달나니 썰어버리는 왜썰아버려」

엽헤서이럭니저러니하는 모녀의말을귀에다마듯지도안이하고 사라의아버지는

(엇더케달내나…)ㅣ하고 달낼말의순서를생각하 라고 내여버린담배에서 피여올나가는연기만 바라보고안젓드니 무엇을생각한듯시쌀를부른다

「사라야」

사라는아버지에부름을쌀아 뒤마루로들어간다

「네ㅣ」

「너는 언제까지든지학교에만단기겟니 지금은공부도그만큼햇스니 고만집으로내려오렴은아」

「그래도아버지 저는한이삼년만더하고십허요 그까지중학이나맛처가지고야뭘아러야지요……」

「공부하는것이어듸한이잇니 또사람의욕망이라는것도끗이업는것이다 즈ㅣ ㅇ그럿케공부를하고십흐면집에서는못하니

「뭐여기서요? 이런데서선생도업고또번잡하여 공부를엇더케함니까」

「선생이업다는것은혹시그럴뜻하다만은 어머니야게서도 평생네게 무삼말심이나하시드냐 그러고나도일상몸이편치못하여누어잇스니 무엇이범잡하단말이냐 그쌘안이라나도요새갓하서는 언이때엇더케될지도알수업는대 너는 그럿케돌아만단이면 압일을장차엇지하잔말이냐」

사라의아버지는 목소래까지도흐린것갓다 사라는 그말을듯고다시아버지의

얼골을치여다보니 과연얼골빗이이전보다파리하여진듯하다 그래서어머니 아버지의얼골을번가라치여다보며

「어머니 아버지께서그럿케 몸이편치안으세요?」

「아버지쌘안이라 낸들어듸몸이그리성하냐 그런것을생각하더래도 너만조하도일상공부만하고잇겟니…… 집안일도보살펴야지 너외에야누가 우리집안일을돌보아줄사람이잇는냐」

「그러면이왕시작햇스니 올일년이나맛치고 고만내려오지요」

어머니 아버지는매우깁버하며 약속이나한듯이똑갓치

「고만내려오겟서?」

「네ㅣ」

사라는피끼하나업시대답한다 사라의아버지는 말이차차자긔의예정대로 나아감을마음가운데혼자깁버한다

「그래 그럿케하면늙어가는우리도 저윽이마음이뇌이겟다 그리고너도차차나이가장성하여가니……」

사라는가삼이조마조마하여 급피입을열어

「아버지 그대신저는 언제든지독신으로지낼터이애요」

사라는 아버지의말슴대로 한가지조건을승락한대신에「독신으로…」ㅣ라는새

로운조건을 또하나식내인다 그리고는고개를숙이고 셈은양말우에붉게수노은적은쌋을 손톱으로이리저리그ㅣ스고잇다

「글세그것은또무슨소리냐 너는아모리독신으로늙느니 시집을가지안느니하지만은 너하나그리고잇스면 이집은누가건사하여가겟니 또그런것은차차하고라도 상현이에게대한의리도 좀생각하여보아라」

이런말이나올것은발서붓터 미리짐작하고잇섯스니싸 새삼스럽게놀내일것도업스나 아모리부모일지라도 일생에다시업시중대한혼인을억제하는것이 너머도그편권리만주장하는 것이안인가…… 하야사라는은한가운대 부모가원망스럽게생각된다 그래서아모대답도하지안코 맛치어럿슬때어머니의일으는말을 잘듯지안이하면 어머니가「나는너의어머니가안니야 너는길에서주어온아해다 즈ㅣ○그럿케일으는말을듯지안이하갯거든 너의어머니한데로가고말어라」ㅣ하시며아모런일을해도본체만체하실때에 갑째기외로운생각이일어나서 입을비죽어리며우는어린애갓치사라도공연이마음이서글퍼저서 야속한눈물이아지못하는새에 홀너내려온다

六……三

학교에잇슬때는 한낫홀융한상급생이나 한번집에돌아오고보면 모도어린애와갓치대우하니싸 사라도역시어린애갓치되여 도모지삼가는것도업시 제마

음대로떠들어내기도하고 소학교애들모양으로 목소리도 놉허창가도불으고한다 어머니는그럴때마다 귀여운듯시바라보시다가 빙긋시우스며(나이가 이십을바라보는게집애가 져게무슨모양이람 남갓흐면네나히에 바누질에막힐것이업겟다 이전학교고뭐이고다그만둬라 사람바리고말겟다 발서경애는아들이형제나된다드라 져리고야남에어미노릇을 엇더케하겟니?)ㅣ하시며눈을흘긴다 그러면사라는(그러기에누가시집가겟때요 나혼자서살터인대……)하며더한층목소리놉혀 어머니도알어드르실만한 一달아달아밝우달아 이태백노든달아……」ㅣ를불으면웃는다 어머님도쌀아우스며 엽헤뇌여잇는자를들고(옛ㅣ세못된년……)ㅣ하고말어버린다

사라가 이번집에돌아온지도 오날이벌서닷새째되는첫공일이다 사라는예배당에서돌아오며 옷을버서의거리에집어넛코나서는 뒤마루에서혼자표를세워놋코 목을갸웃거려가며「밝고밝은져달빗은 나의고향빗처련만」ㅣ하는노래를 싸요링과얼너서불으고잇다 어머니는짤을먹이려고 접시에과자를담어가지고들어오다가 이모양을물끄럼이바라고섯더니 빙그레하고웃스며

「너는그져그모양이구나 여름에와도그럿코겨울에와도그럿코……고향인지사향인지다접어치우고 과자나먹고짓거려라」

사라는일어나 과자접시를밧으며 목을갸웃하고

「어머니?」

「왜 또무슨소리를하랴고 그러니」

「그런게안이라 오날밤유학생들끼리음악회를연대요 그래서거기서수입되는 것으로 해주서올나오는고학생들이 잇슬집을한채산대요 나도하나하게되엿 는대 어머니오날밤에구경가서요 네!?」

「실타 그싸진것들어야알지도못하는걸 가면뭘하니 차라리집에서일이나하 지」

「모르긴왜모른다고그리세요 그럭대엽집이덕순이는「외로운백조」-라는춤을 추게되여서요 아조매우자미잇는춤이애요 어머니 이거보세요…… 이럿케 추는것이람이다」

사라는파자접시를내려놋코 춤추는형용을하며웃는다 어머님도우스며

「보기실타 춤인지무엇인지 어서파자나먹고써 들어라」

사라는 비로소우슴을씃치고 파자를하나집어입에넛는다

「아이고참맛이훌륭해요 서울서도이럿것은못먹어보왓는대 올나갈때영자좀 사다주어야 어머니이거어대서사오서세요?」

「나는몰은다 어제상현이가너주라고사가지고왓드라 상현이보고물어보렴」

아직싸지웃고써들든사라는 그소리를듯더니 파자도괜이먹엇구나… 하는듯

시씁다말고 우두먼이안저잇다

「너 상현씨만나밧니?」

「안이요」

「왜 아직샛만나보지도안이햇단말이냐 짜로잇스면우정차저라도가볼터인데 한집안에잇스면서두…」

「……」

사라는아모대답도업다 집에온지가일주일이나거진되여가는대 아직샛만나보지도못하엿다함은 좀이상한듯한일이나 상현은아참일즉이공장으로나아가면 밤이느진뒤에야돌아온다 그러고사라는상현을만나지안으려고 될수잇는대로몸을피한다 그래서이두사람은 사라가내려온지발서일주일이나 거진되는오날싸지도 서로만나보지못하엿다 속담에범도제말을하면온다고 마침상현이가박그로쏫차들어온다 부인은 차님 잘되엿다는듯이 상현을바라보며

「오날은일요일인대 공장에는왜갓댓나」

「네- 무엇을좀실험하든것이잇난대 그것을마자맛치노라고 좀단여왓슴니다」

「뭐 이번새로사온올에물드린다든것말인가?」

「네- 그것말임니다 갑은이전에반도못드러도 빗은썩훌륭하여저서요」

부인은 상현이가 뵈이는표본색을보더니

「아이고참말고흔걸 이게무슨빗이야처마에들여스면조겟네 나모시한필만들여다주게나」

「네ㅣ 그러시지요 그러면내일아참에갈때에주십시요」

「그럼 색들여다주게」

부인은 사라를돌아다보며

「아ㅣ참 이는상현씨를만나보지도못하엿다며 처음보고도인사도안니」

사라는진퇴유곡이라 도망도할수업고할수업시 새장안에들어잇는종달이만 들여다보고서잇다가 마지못하여 그러나입은열지도안이하고 다만고개만조곰 숙인다 상현이도역시머리를숙이여답례한다

남문누상에걸이여잇는큰종은 정낫이되엿다고은은이울어나온다 그짜운드웨이쌘는남산허리에부되치고 다시말업시서잇는두남녀의가삼을 울이고지내여간다

「자네퍽시장하겟네 어서점심먹어야지 오날은아참도먹지안이하엿는대…」

부인은 이갓치말하며부억을향하여나아간다 어머니싸지가시고만이싸 사라는외ㄴ몸을 굴근노끈으로 치ㅇ칭감어올나오는듯하여 숨이다ㅂ답하여진다 그러나 그럿타고 피해갈수도업고 애쓰진치마끗만 비ㅇ빙틀고잇다 이것저것아지못하는상현은 이전사라대로만여기고 여전이다정한목소래로

「내려오신지가발서 오륙일이나되도록 공연이일이밧버서 아직것만나 뵙지도못하엿소 그새몸이매우강건이게셧다니 무엇보다도깁부오」

사라는아모대답도업다 그러나상현은이것이 자긔에대한사라의마음이 점점식어가는싸닭이라고는 전연이알싸닭이업다 만일상현이가 이런줄을조금이라도알엇스면 사라보다도자긔가먼저피하고 만나지안이하여슬것이다

「더욱금년에 우량한성적으로학교를마치셧다니매우깁붐니다」

「……」

상현은비로소사라의태도가 이전과달음을서달앗다 수접은듯시짬々이겻눈으로만바라보면 방긋방긋웃기만하고 아모말도하지안는 이전태도가안인것을 차저닛다

서로사랑하는남녀간에는 말한마듸만평시와조금달나저도 혹시내게대한저편의사랑이 식어간다는현상이안인가하고 공연이마음이뒤숭々하여지며 평시에는무심이지내치든것싸지도 모다그래그런것이라고 생각하게되는법이다 그래서상현이도지금은 이상한생각이불연듯일어나서 사라의외ㄴ몸동아리를 사랑을검사하는현미경아래에갓다놋코 마치무슨균이나차저내려는듯시 이리저리뒤적어리며 임이지내간일과 방장목전에낫하난현상을 샂々치비최여가며

대조하기시작한다 아모리살피여보와도 지금사라의사랑에는 보지못하든분
자가석기여잇다 혹시자긔눈이잘못되여그러나하고 되보고되보고하여도 무
엇인지는알수업스나 달은분자가석기여잇는것은 다투지못할사실이다 상현
은그것이엇더한종유인지가 안타깝게도알고십헛다 그래서 여러가지로분석
도하여보고 시약(試藥)도홀여너어보며 리도마스지도썻자보아스나 그분자
의셩분은알어낼수가업섯다 그러나 『그가운대는 무슨이상한분자가석기여잇
고 그분안이라이전에순전한 사랑의분자싸지도 차차로그이상한분자와 화
합(化合)되여가는것만은 확실히차저내엿다 상현은거의긔절할번하다가 겨
우다시진정한다

…십육세되든해붓터「사라는내안해다 마음것사랑할수가잇는내안해다」—하고
생각할때마다 상현은남모르게홀노깁버하며 그것에한층힘을엇어이때싸지 코
가찌르도록저린 직공들의땀내가운대석기여 외—몸에 누른빗푸른빗다칠하
여가면서도 조금도굴하지안이하고 일하여왓다 이갓치몸을수고러이하다가
도 문득사라가자긔를사랑한다…하는것만생각하면 알수업는무슨재릿한맛에
모든괴로움은물노씨서버린듯시 흔젹도업시사라저버리고만다—자긔가장내에
그공장의주인이된다는것보다도 또는주인내외의태산갓흔은혜를 보답하다는
깁붐보다도 무엇이라고형용할수업는 깁붐을늣겻다—그래서바위돌이녹을듯

한더위에도 쓸는김이훅々씨언치는시험가마를 도리여서늘한듯시 들여다보
며지내여왓다 과연상현은자긔목슴갓치 사라를사랑하엿다 만일자긔가이세
상을떠나서 사라가일층더행복스려워지겟다고하면 상현은조금도주져함이업
시 깁부게자긔목슴을 바리여슬지도알수업다 그뿐안이라사라도역시 상현
을오직한사람이라고밋어왓다 그래서엇던날밤 두사람이남산에올나 달빗에
번적어리는용당포를내여다보며안젓슬때 사라는상현의가삼에안기여「우리는이
모양대로 고만미이라로변하엿스면조켓서요 그려면박물관한모퉁이서 이세
상이이슬때까지는 여러남녀의흠선에초점이되지안케서요?」—하며상현의두볼
에 불갓흔키쓰를준일싸지도잇섯다 그처럼서로밋고서로사랑하든사라가 지
금은자긔의마음가운데사람이안임을 서달은상현이가 거의긔절할번만하고만
것은 도리여이상한일이라고할수박게업다……
상현은입술을썩물고 다시는아모말도입박게 내이지안이한다 남문누우에걸
인종은 열두번째되는 매—마즈막되는소래를 내이며울고 그남저지소래만
「우—ㅇ우—ㅇ」하며맑게개인하날노 두—ㅇ둥떠나아간다 상현의마음은그종소래를
하고 놉고놉흔허공으로 한업시흘너가버리고만다

「시장한데어서오게나사라야너도어서와서점심을먹어라」
상현은비로소 내정신이들어돌아다보니 사라의아버지싸지도 언으듯들어와

서 이편을바라보며웃고안져잇다 상현우밥도별노먹고십지안엇다ㅣ만일먹고십헛다하면 그는밝간거짓말일것이다ㅣ그려나마지못하여입으로는

「네ㅣ」ㅣ하고대답하여스나 진정으로그자리에갓치안기는실엿다

「손을 잡간씻고오겟슴니다」

상현은 말을마치고나서는 우물을향하여걸어간다 사라도지금이야 상현이를곁눈으로잠간흘기여본다 그러케도외난갓흉한것만스려다가 비교하여보든 사라도 흠업시발육잘된체격에는 고만고개가숙으려지며 「참말훌륭한체격이다 언제역사책에서본 알넥쓰더ㅣ대왕갓구나」ㅣ하며칭찬한다

七……一

사라는열을만에야 겨우돌아왓다

사랑스려운학교는 이전보다활긔가가득하여뵈인다 사라는영자의일이얼는알고십허서 급한마음으로거름을빨이하여 층대를올나간다 마참오선생이도서실열쇠를가지고 층대우으로마주내려온다 사라는공손이예하며 그새이의안부를물엇다 오선생도집안々부를뭇고 또자긔의권고가얼마나 호력을낫하내엿나하는눈치로 사라의안색을살피며

「영자도오날이야돌아왓는대 몸이편치안타고누엇더라 어서빨이올나가보렴」

「네ㅣ에!병이낫서요?」

사라는놀나서 이갓흔말을남겨두고 급히뛰여올나간다

영자는 요우에맥업시누어머리우에 어름주머니를올여놋코잇다가 문이열아는소래가나니까 힘업는눈을들어서 이편을바라본다

「영자어대가편치안어요?」

사라는 베개엽흐로갓가이가서 허리를쑤부리고 힘업시들어누어잇는영자를들여다보며뭇는다 영자는 사라의서연한모양을치여다보며

「네ㅣ머리가좀압허요 그런대자긜댕겨오섯서요」

「영자는 왜그럿케느젓서요 머리가대단함니까」

「아주못견대갓서요 사라에게이야기할말이만이잇스니 의복이나갈어입고오시구려 나는사라만보면괴운이나요 지금은머리도조금나은듯해요」

목소래에도 처음보다는조금괴운이생긴듯하며 몸을돌여누으며 머리에어름주머니를내려놋는다 사라는하라는대로옷을갈어입고 다시영자의머리맛흐로간다 마참 운동장에서는「… 라인하는교요히흘너가는대 드난해는놀에쌔여곱게빗쳣네…」ㅣ하며누가노래하고지내여간다

「영자 져녁을좀먹어야지요」

「안이요 아모것도먹고십지안어요」

「대참 조흔것가지고왓지」

사라는 얼는몸을일어책상압흐로가더니 흐랭코를열고큰귤늘 두어개꺼내여가지고온다

「내게는 이귤향긔갓치조흔것은 다시업서요 머리가직끈직끈압흐다가도 이냄새만맛흐면 정신이 고만산뜻하여지고마려요 자— 이귤한쪽씹어보세요 내말이거짓말이나」

영자는 사라의권하는대로 귤을밧아씹는다

「그래 가셧든일은엇지나되엿서요」

「엇지되고말고할것이뭐잇서요 그저신산한일뿐이지요…… 그날정거장에서붓터 머리가압푸기시작하더니 차에올으니까 정신을수습할수가업서요 그럿타고돌아올수는업고 억지로개성까지갓지요 그래도여러사람들이반가워나하여주엇스면 머리안아 라와 몸이압혀도 마음으로는진정깁부겟서요 아— 그러나누가나를 반기여줄사람이잇게서요」

「뭐요? 그래영철씨까지도그래요」

「네— 잇슬까닭이업지요 그러니까공연이머리만점점더하여 할수업시그잇기실은곳에서 눈쌀을마저가며잇다왓지요」

사라 모든사람들은「긔숙사갓치 쓸쓸한곳이어대잇겟느냐」—하지만은 사고무친한외로운몸은 그래도역시이긔숙사박게 다정스러운곳이업구려 아모리친족에집이잇다하여도 아긔숙사외에난…… 그럿케도쓸〻하다난긔숙사외에난 다시내게난갓드릴곳이업서요」

영자는 차듸찬이마에저저달여붓는 머리털을괴롭게글거올인다

「그런대 의논할일이라든것은무엇이애요」

이말은듯더니영자는 한층더비창한빗을나타내이며

「모도다마음만괴롭게하는일이지요」

영자의말을듯건대이러하다 —어린것들도점〻자라서학비도들게되고 영자도지금은졸업을하여스니까 자긔한몸은엇더케하든지사라갈수가잇슬터인즉 이제붓터는매달보내든 학비는고만두겟다하며 지금후취로드러온부인의친척중에 재산은그리만치못하나 약간돈으로빗노이를하여 생게는넉〻한사람이잇스니 그곳으로시집을가라고권하는것이라한다

「그뿐안이라 인환이가흔훌융한남자가 영자갓흔사람을 마저가지도안켓고 가령마저간다하여도 영자는짝이기우러 뭇〻내행복스러운생활을계속할수업슬터이니 내말대로그곳으로시집을가시요」—하겟지요 그러니까 나갓흔사람에게는 그나이가을에쉬인다섯살이나되고 아들이셋이나된다는노인외에는 다시남편될사람이업다는구려 너머도사람을업수이보니까……

영자는 흐르는눈물을 손등으로써스며

아모리무의무탁하고 이갓치어리석은몸이기로 하낫사람의이상에는 적으나마한가지무슨이상은잇겟지요 만일그이상에어그러지면 평생을독신으로지내든지 그러치안으면고만……든지 그것이야그리 간섭할필요가무엇이애요 그래서나는인환씨하고 ᄭᅩᆨ결혼을하겟다고말하려하엿스나 그역이환씨마음을 확실이알수도업슬뿐안이라 지금은외이려미음을밧고 잇다십히하고잇스니ᄭᅡ 나는할수업시일생을독신으로 지내여가겟다고말해버리고말엇서요」

영자는 다시흐르는눈물을씻는다

「그러면인환씨를만나보고 잘의논하여보시지요」

「그랫스면조켓지만 그사람은나를만나줄것갓지안어요 셜영만나준다하드래도 내가무엇이라말을한단말이요」

눈물에저즌눈으로 천정에늘어저잇는전등만바라보고잇다가 다시말을잇대인다

「사라 나는발서이세상이 귀치안어져요 어름갓치차다〳〵못하여 쓰리기ᄭᅡ지한이괴로운세상이……사람은왜이차듸찬세상에생겨낫슬ᄭᅡ요 나는이몸의존재ᄭᅡ지도의심이나구려 혹시이몸이햇복스러운천지에낫다하면 자미스러운ᄭᅮᆷ이나ᄭᅮ는세음치고 모지목숨을잇슬고 살어갈지도모로나 나는발서장내의희망이라고는 털ᄭᅳᆺ만치도업쓸뿐안이라 현재의만족이라는것도 역시그와조금도달을것이업지요 그우에다가지내간과거의회상은 하나갓치모다쓰린것뿐이니 이것이세상에살어잇다는 본의가무엇이요 차라리모진목숨을ᄭᅳᆫ어 일시라도속히 냉정한세상에서ᄯᅥ나버리는편이 도리여나을것갓해요

영자는 더운듯시이불을조금밀어내리고 져욱이흥분된어조로다시계속한다

나는돌아올ᄯᅢ에 괴로운몸을ᄭᅳᆯ으며 겨우피뜰국화한줌을썩거가지고 아버지 어머니산소에갓다왓서요 「왜이모진세상에다 사랑하는자식만 외로이버리고가샤고는 다시본체도안으시우……」—하며실컷울고왓서요 그러니「너 왓느냐」—를하시겟소 「울지마라」—를하시겟소 그저한번죽으면고만이애요 붉은ᄭᅩᆺ이피나 흰눈이덥히나 깁ᄲᅮᆯ것도업고 ᄯᅩ는치울것도업는 모도가공허한죽엄을가진사람이 무엇을알이가잇서요 가서우는내가 도리여어리석은짓이지 이몸슬세상에서만가지는 히로애락을ᄯᅥ나서 머월고도깁흔허무로도라자뒤에야 무엇을깁버하며 무엇을슬퍼하리ᄭᅡ만은 그래도무덤압헤서 실컷울고나니ᄭᅡ 마음이조금시원한듯하여져요 그래서고요히안고잇스니ᄭᅡ 생시갓치우스시는얼골노「어서내려가라 못된자식! 울기는웨울어」—하시는소래가 들이는듯〳〵하여요 고만할수업시절을한번하고 돌아내려오노라니ᄭᅡ「잘가거라」—하시는 소래가나는듯나는듯하여 참아발셀

이돌오기지안어요」

영자는 목이탁메여 말도일우지못하고 흑々늣기여가며운다

「살아실때갓흐면 대문밧까지쌀아 나오시며 가서몸조심잘하여라 공부나잘하다가 요다음방학이되거든 곳내려오나라」하시며 내몸이뵈이지안토록 문깐에셧교게실어머님도 아ㅣ모말슴……아아! 죽엄이라는것은참말편안한것이애요ㅣ슬품도업고 깁붐도업는……나는〳〵 그유쾌한길로ㅣ어머님이가시고 아버지가가신ㅣ그유쾌한길로 걸어가십허요」

영자가늣기여가며 우는것을보니싸 사라도엇재모든것이귀치안어지며 져도모르게눈물이뚝々떠러진다 그러나영자를위로하기위하여 자긔도늣기여울면서 울지말나고권한다

「영자우지마세요 이세상은그리좁은곳은안이애요 영자보다도더혹독한고통을 당하고잇는사람이 그멧々치갓서요 그만것으로세상을 그럿케비관하여서는 넘오도약하지안어요 지금영자의압헤는 질거운행복이얼마든지기대리고잇지안어요? 영자 이전위인들갓치 좀굿세인사람이되여주세요」

「사라 고맙소 이런말하마듸라도 내게들여주는 람은 오직사라한사람박게업서요 그러나조련내일부터라도 생활문제에억매여지々안켓서요 그러니이세상이 엇재귀치안어지々안켓소」

「네ㅣ그싸진것은염여업서요 일전오선생님께 영자의사정을말하고 가정교사갓흔것이라도 한곳구하여달나고하엿드니 이번학긔부터는 예비과조교수로라도 쓰도록주선하시겟다고하섯서요」

「아이고 고마워라 사라는이갓치도나를사랑하여주는대……만일사라가내업헤업고보면 나는일시라도살어갈수가업서요」

「그런소리는 일후에할심대고 제발낙심하지말어주서요」

「네ㅣ 일후부터는사라의말대로 굿세인사람이되겟서요 아이고나는쓸대업는 내말만써드럿구려 그런대댁내가다안령하서요?」

이번은영자가 도리여뭇는다

「네ㅣ 지금생각하니 나는너무도제의견만주장하고왓서요」

사라는 모든것이후회가나서 맥업시고개를숙으린다

「사라는 그래도제주장만세울 부모나게시지안어요 그런대그양반은……?」

「뭐르엇더케해요……지금와서생각하니 부모에게든지 오선생에게든 지대단이잘못하엿서요 또상현씨에게도……」

「사라 그것은조치못한일인줄노 나는생각해요 져편에서나를실여한다……하는것을깨다르면 여간마음이쓰린것이안이애요 사라는아직그런경험이업스니싸 그럿치만 나는……」